

“장애인 예술가에 더 많은 취업 문 열리길”

중증 장애예술가 호남권 첫 임금근로 계약 이귀원·이혜선·이소윤씨

대신정보통신과 1년 계약...장소·재료비도 제공 받아 “첫 월급 꿈만 같아... 후배들에게 길 터주는 활동할 것”

“2024년에는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이귀원(63)씨는 올해 새 출발의 포부가 남다르다. 장애인 예술가로서 26년만에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최근 대신정보통신(주), 중증장애인 예술가 3명과 1년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씩 본인의 작품을 대신정보통신에 제공하며 하루 3시간 30분에 달하는 최저시급(9860원)을 월급으로 받게된다. 장소제공과 재료비도 지급된다. 이번 채용은 중증 장애예술가들이 임금근로자로 계약된 호남권역 첫 사례다.

이씨는 1996년 1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 이 됐다. 1년간 입원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이씨는 상반신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미술과 목공예에 도전했다. 그는 1998년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광고미술 분야 금메달, 2000년 전국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퍼스트디자인 분야 금메달을 수상하며 미술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됐다.

하지만 1년에 판매하는 작품은 1개밖에 되지 않아 다음 작품을 위한 재료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몸 상태가 더욱 예민해져 작업하는 것도 힘들어져 체력적 한계도 있었다. 이씨는 “체육 분야는 선수들이 연습하는 시간도 일자리로 여기고 월급이 주어진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2024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의 문이 보다 활짝 열리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혜선(여·26)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미술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부터 광주장애인미술협회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이씨는 그림을 그릴 때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을만큼 푹 빠져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함이 컸다. 장애인 예술작가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수입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과 장애인 연금으로만 평생을 살아왔던 이씨는 최근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12월 월급을 받았다.

이씨는 “언젠가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



호남권 중증장애인 예술작가들이 광주시 북구 중흥동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 작업실에서 환하게 웃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선, 이소윤, 이귀원씨.

리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하다”고 웃어보였다. 그동안 부모님의 지원과 장애인 연금으로만 생활해왔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수입이 생긴 것은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선천적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소윤(여·21)씨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그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어렸을 때부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시각에 많은 것을 의존해온 이씨는 보고,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옮기는데 큰 재미를 느꼈다. 이씨의

부모님은 이씨가 직업을 얻을 수 있을거라 기대조차 하지 못했기에, 이씨가 자랑스레 내보인 명함과 사원증을 보며 크게 기뻐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마냥 그리고 싶은 그림, 좋아하는 사물을 그렸다면 지금은 회사에 소속돼 있어 소속감도 느끼고 내가 잘해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글·사진=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제3회 호남사랑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제3회 호남사랑장학회 장학회(이사장 백석)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29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22명의 장학생에게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회는 2021년 24명, 2022년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학생들을 격려했다.

2016년 발족한 사단법인 호남사랑장학회는 1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영아일시보 호소 등에 3000만원 상당의 차관 18대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백석 이사장은 1억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모범청소년에 장학금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서생현)는 지난 30일 담양 지역 청소년 11명을 장학생으로 선정, ‘제43회 모범청소년 무궁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장학생 및 학부모,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고교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

등 총 500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무궁화 장학금은 지도 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노대현·최영덕·이동섭 위원이 담양군수 표창장과 담양시장 감사장을 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종률 광주 남부소방서장·김관호 광산소방서장 취임



김종률(사진 왼쪽) 제14대 광주 남부소방서장과 김관호(오른쪽) 제24대 광산소방서장이 1일 취임했다.

김종률 서장은 1990년 소방공무원으로 입문해 광산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안전보건팀장, 소방감찰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관호 서장은 1991년 소방사 공채로 입문해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기획팀장, 구조팀장, 광주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과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강재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부임

강재구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신임 소장(사진)이 1일 부임했다. 강 소장은 1996년 공단에 입사해 다도해, 지리산, 월출산 등 행정실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분사 탐방시설처와 홍보실, 행정처를 거쳐 국립공원생물종보존지원과 국립공원여구원 기획운영실장 등을 역임했다.

멸종위기 생물복원과 재난안전 분야 탁월한 관리자로서 공단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강 소장은 국립공원 재난대응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강 소장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파트너로서 상호협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생태계 가치 증진과 소통하는 공원관리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달뜨기	23:19
해질름	17:31	달지기	11:30

우중충한 하늘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림	3/7	보성	흐림	1/8
목포	흐림	3/7	순천	흐림	3/9
여수	흐림	5/9	영광	흐림	2/7
나주	흐림	1/8	진도	흐림	2/8
완도	흐림	4/9	전주	흐림	3/7
구례	흐림	1/8	군산	흐림	2/7
강진	흐림	2/9	남원	흐림	1/6
해남	흐림	2/8	흑산도	흐림	5/8
장성	흐림	1/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0.5~1.0	0.5~1.0
	면바다(북)	0.5~1.0	0.5~1.0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0.5~1.0	0.5~1.0
	면바다(서)	0.5~1.0	0.5~1.0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0.5~1.0	0.5~1.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56	05:33	23:39	18:09
여수	06:26		00:22	
	19:01		12:54	

◇ 생활지수

감기	심혈관	미세먼지
경고	경고	보통

◇ 주간 날씨

3(수)	4(목)	5(금)
3/8	-1/9	1/11
6(토)	7(일)	8(월)
-1/7	-2/4	-4/3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화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연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터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이자, 장례지도사무이자 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003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린이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